

CHANNEL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삼정KPMG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신입 회계사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재를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는 삼정KPMG는
People First 문화를 바탕으로 인재들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일상 속 다양한 이벤트로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새로운 시작은 새로운 운명을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삼정KPMG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나고, 여러분들의 운명을 힘차게
개척해 가는 멋진 전문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CONTENTS

Vol
261



건강한 성장

04 Emerging Trends

위기 후 피어나는 새로운 기회!
성장 궤도에 올라선 '여행업'

06 Market Reader

기업회생, 새로운 도약으로 삼으려면?

08 Team Story

위기를 기회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돕는 회생전문팀

10 Client+

지니뮤직,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기업

12 Expert's Advice

인공지능 시대,
회계 감사에 어떤 영향 끼칠까?

14 알쓸사전

알아두면 쓸데있는 시사·경제 용어사전

행복한 일터

16 People First I

곤지암 리조트에서 열린 입문 교육 스케치
2024 신입 회계사 연수 현장 대공개

20 People First II

신입 회계사 전격탐구!
"우리는 신입 삼정인입니다"

22 삼정人록

선배 삼정인이 보내온 환영 메시지
"어서와! 진심으로 환영해!"

24 삼정동호회자랑

공 구르며 행복도 2배로 키우는!
볼링 동호회 '데구르르'

26 세계가 열린다

글로벌 파견자가 전하는 어드바이스
인도 Korea Desk편 by 문지호 Director

28 이동규의 두줄칼럼

채용의 법칙

30 心 Care

새내기 직장인, 버티기보다 성장하기

32 Samjong News

김교태 회장 재선임...
"모두가 체감하는 긍정적 변화 이끌 것" 외



QR코드를 통해 삼성KPMG의
생생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성KPMG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발행처 삼성KPMG

기획·편집 홍보팀(02-2112-7567)

디자인 네오메디아(02-512-1666)

인쇄 드림인쇄(02-464-6161)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06236

홈페이지 home.kpmg/kr/ko/home.html

위기 후 피어나는 새로운 기회! 성장 궤도에 올라선 '여행업'

지속되는 3高(고금리·고물가·고환율)
환경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동안 억눌려
있던 여행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LCC(Low Cost Carrier, 저비용
항공사)의 노선 확대 및 국제선 취항
증가는 여행 수요 확대에 힘입어
앞으로도 긍정적인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호에서는 성숙기에
진입하고 있는 여행업 내 관찰되는 주요
산업 동향을 살펴보았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 유행병이나 정치·사회
적 이슈 등 대내외적 영향으로 인해 여행 업
황이 다사다난하다. 신생 여행사의 범람으로
완전경쟁 시장을 형성하던 중 갑작스레 찾아
온 코로나19로 수많은 소규모 여행업체가 시
장에서 퇴출당하는 대격변의 시기를 겪었다.
2023년 국내 아웃바운드(Outbound, 내국인
의 해외여행) 여행객은 2019년 대비 80% 수
준으로 회복하며 향후 성장세에 기대가 한데
모아졌지만, 올해 8월에는 티메프 사태로 정
산 받지 못한 미수채권의 영향으로 암울한 2
분기 성적표를 받게 되었다. 이처럼 여행업은
여타 산업군에 비해 특히 외부 환경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최근 몇 년 사이 명과 암이 교차하는 여행 시
장을 지켜본 소비자들은 이제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여행사로 고개를 돌리는 중이다. 앞
으로 재무 상황이 탄탄한 대기업 여행사의
역량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주요 기업은 다양한 전략으로 여행 상품에
매력도를 더해가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경험에 특화된 여행 상품으로 2030세대 공략

요즘 소비자들은 소유를 통한 소비보다 다
양한 경험에 대한 가치를 중시한다. 자신의
관심사와 취미에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
디깅(Digging)소비 트렌드를 보이기도 한
다. 경험에 대한 높아진 수요에 대응하여 여
행기업은 패키지 상품 구성을 새롭게 시도
중이다. 마치 유명 관광지 도장 깨기를 하는
듯한 기존의 뻑뻑한 일정 대신, 콘셉트와 주
제가 명확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여행 상
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하나투어는 여행 기간 동안 스
쿠버 다이빙 자격증 취득, 오로라 관찰, 와
인 공장 투어 같이 취미·전문성·탐험성 콘
텐츠에 집중한 이색 여행 상품을 제공하며
MZ세대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글
로벌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Airbnb)
는 상상 속 공간을 실현하는 대담한 기획력
으로 이목을 끌었다. 특히 주요 영화 제작
사, 브랜드 기업, 유명인 등 업종을 넘나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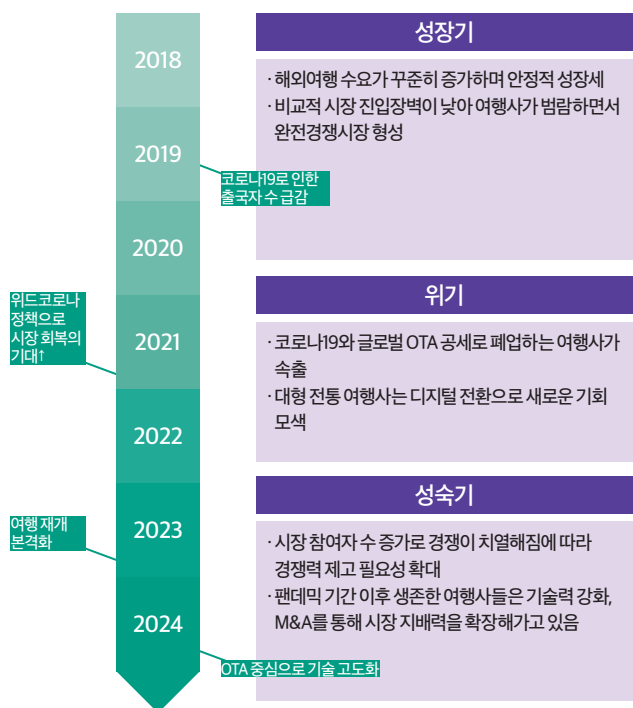
는 콜라보레이션으로 전 세계 소비자에게
소구하고 있다. 앞으로도 주요 여행사의 상
품 기획력은 점점 더 다각화된 모습으로 시
도될 것으로 기대되며 잠재 고객층을 타깃
하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수
단으로 여행 상품 기획력이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AI 기술이 결합된 트래블테크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

한편 주요 여행 기업은 AI(인공지능) 열풍에
합류하며 서비스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AI
기술을 활용한 고객 응대 등의 서비스부터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여행
일정을 제공하거나, 최적의 항공권과 숙박
옵션을 실시간으로 제안해 주기도 한다. 소
비자의 부정적인 피드백에는 신속하게 대
응하며 고객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실시
간 AI 검열 기능 기반의 후기 자동 관리 시
스템도 돋보인다.

야놀자의 경우, 한국어에 최적화된 LLM

여행산업의 대외적 영향에 따른 산업 동향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Large Language Model, 대형언어모델)을 자체 개발해 한국어의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까지 이해하고 최근 6개월간 후기를 자동 분석하여 상품의 특성을 정리해 주는 기능으로 사용자 친화적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외부 환경 요소에 변수가 많은 여행업 특성상 데이터 기반의 수요 예측, 성과 분석 등 서비스 및 상품 개발에 다각적으로 활용되는 모습이다. AI를 활용해 자체 트래블 테크(Travel-tech)를 직접 개발하거나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적극적인 투자나 협업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하는 모습은 앞으로도 계속 관찰될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오르려면,

시장 지배력 강화 집중해야

국내 여행산업은 대부분의 사업체가 영세하여 소수의 대기업이 시장을 주도하

는 구조를 보이면서도 비교적 시장 진입장벽이 낮은 특성으로 이중업체와 신생 기업이 뛰어들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공통 OTA(Online Travel Agency)까지 국내 여행 비즈니스에 가세하면서 앞으로도 여행 시장 내 경쟁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주요 기업들은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경쟁우위를 확보할 시점이다. 대표적으로 부킹닷컴(Booking.com), 익스피디아(Expedia)가 내세우고 있는 볼트온(Bolt-on) M&A 전략 등 자사와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기업에 대한 M&A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여행업계 내 경쟁력 확보를 위해 B2B(Business to Business) 사업 영역에서의 구독·데이터·거래 솔루션과 같은 다양한 사업 유형으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여행 슈퍼앱(Super-App)으로의 전환도

여행산업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전략적 대응 방안은?

주요 이슈	대응 방안	세부 방향성
고객 행동 Customer 여행 취향이 파편화되며 차별적 상품 기획 역량이 부각	01 맞춤형 서비스 구현 위한 데이터 역량 강화 및 상품 다각화	· 가치소비, 디깅모먼트 등 트렌드 변화와 소비자 니즈를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자사만의 비즈니스 영역 구축하여 시장 선점할 것 ·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하여 개인의 CLV(Customer Lifetime Value, 고객 생애주기) 및 여행 패턴을 고려한 초개인화 마케팅 구현
시장 환경 Market AI 등 첨단 기술 융합 플랫폼 구조로 전환 가속화	02 자체 혹은 제휴를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여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	· 시장을 이끄는 선진 기업과 합작법인 설립 등, 적극적인 제휴 방식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 ·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기술력을 활용해 비즈니스 모델을 다각화해야 함
경쟁 구도 Competition 이중업체·트래블 테크 기업의 여행업 시장 진입이 가속화되며 경쟁 심화	03 전략적 투자와 M&A를 통한 볼트온(Bolt-on)* 전략 강화	· 기존의 예약 단계에 국한된 비즈니스 구조에서 정보탐색-예약-여행 중-여행 후에 이르기까지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신속하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M&A 추진을 고려 · 글로벌 시장의 주요 OTA 인수로 해외 입지 강화, 기술력 통합으로 시너지를 강화할 필요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볼트온(Bolt-on) 전략이란, 동종업계 기업을 인수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연관 업종의 사업체를 인수하여 회사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전략으로 규모의 경제를 꾀하는 경영 방식

요구된다. 여행의 동기 유발에서 여행 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여행의 시장과 끝을 한 개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커넥티드 트립(Connected Trip)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충성 고객층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본 칼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NTACT US

Deal Advisory 5본부

원정준 전무

Tel. 02-2112-0549

E-mail. jungjunwon@kr.kpmg.com

경제연구원 이아름 선임연구원

Tel. 02-2112-7962

E-mail. alee65@kr.kpmg.com



기업회생, 새로운 도약으로 삼으려면?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티몬과 위메프)’가 지난 9월 10일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다며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44일 후,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회생절차 개시로 재판부가 선임한 조사위원이 티메프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하면, 티메프는 이를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의 인가를 구하게 된다. 최종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은 12월 27일이다. 티메프는 현재 상황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인가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M&A가 성공되어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을 경우에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M&A가 아닌 자력으로 영업활동을 통한 사업지속은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존속형 회생계획 보다는 M&A형 회생계획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회생과 파산, 신청 현황

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재기(Turnaround)를 도모하는 제도다. 기업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의 관리 감독하에 채권 집행 등을 금지하고 기업의 재기를 지원,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재건형 절차다.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된다.

2023년 기업의 회생신청과 파산신청 건수는 각각 1,024건·1,657건으로 회생과 파

산 모두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2024년 8월 말 기준 누적 회생신청 건수는 70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파산 신청 건수는 1,299건으로 전년 대비 25% 이상 증가했다. 이런 흐름으로 볼 때 올해 회생·파산신청 규모도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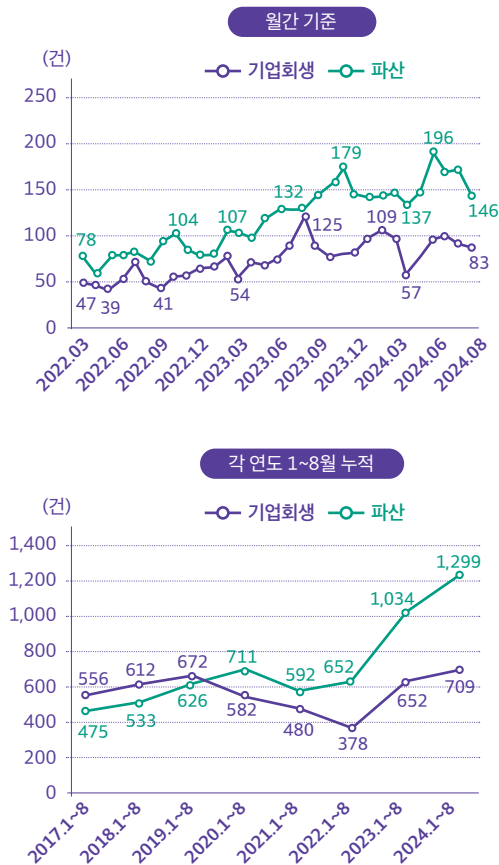
2010년대 후반까지는 파산보다 회생에 도전하는 기업이 더 많았다. 이는 2020년을 기점으로 역전되었고, 최근에는 회생보다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그 이유는 다양하다. 불가피하게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기업은 회생신청으로 인한 낙인효과를 우려해 회생절차 진행의 골든타임을 놓치기도

한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도 기업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 개시결정을 받고 나서 실사를 거친 뒤 인가를 받기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고,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나서 계획안이 불인가를 받기도 한다. 회생계획 인가를 받고도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회생절차가 폐지되기도 하는 등 종결까지 이르는 소요 시간과 복잡성이 크다.

가시발길과도 같은 회생, 성공하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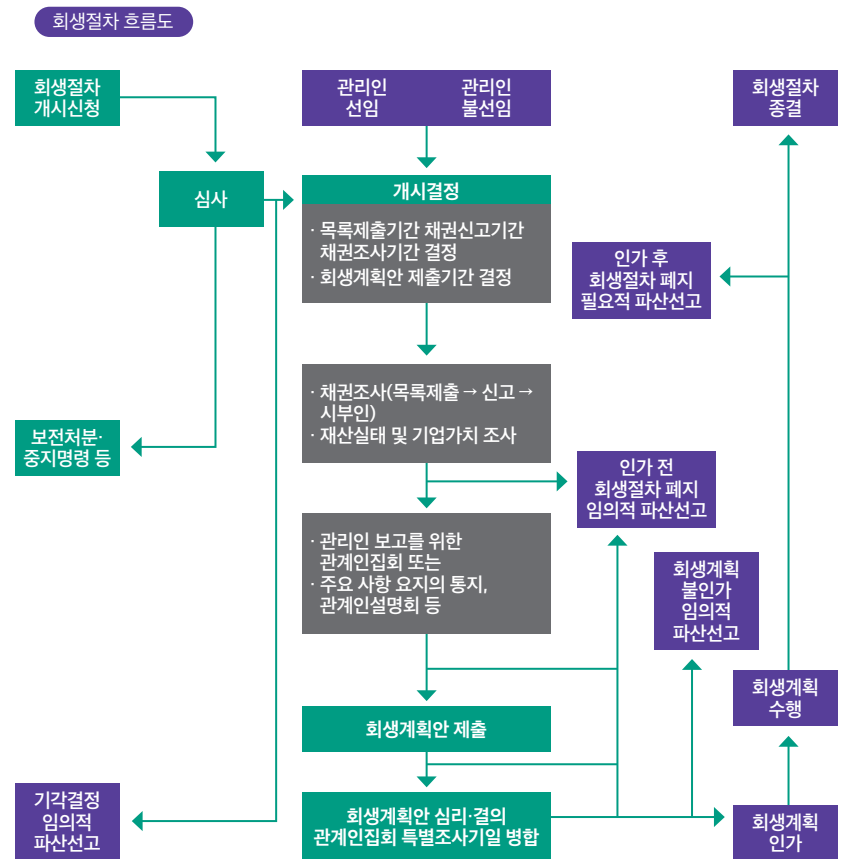
많은 어려움은 따르지만 가능성이 보인다면 기업이 회생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기업이 소멸하면 기업이 장기간 쌓아온 유·무형자산과 기업가의 경험, 노하우가 기업이 미래에 창출할 현금흐름과 함께

국내 법인 회생 및 파산 신청 건수 추이



Source: 법원통계월보

회생절차 개시 신청부터 종결까지 거쳐야 할 관문들



Source: 서울회생법원

사라지기 때문이다. 채무의 감면 등을 통해 회사가 유동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재건을 통해 담보권자를 포함한 회생채권자들에게 최대한 변제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업회생의 성공 여부는 공정성·형평성· 실현 가능성·합리성을 가진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데 달려있다. 회생 제도는 회생 절차의 빠른 진행과 인가를 통해 기업 재건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양화·전문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기업 상황에 맞는 최적의 기업회생 전략 마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티메프와 같이 매수자를 찾는 것도

현명한 전략이다. 올해 하반기 들어 볼트온(Bolt-on)을 통한 시너지 창출로 자사 기업 가치를 높이거나 인수 후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등 M&A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잠재매수자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회생기업이 매각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회생절차나 M&A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제3자 관리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제3자 관리인은 채무자와 그의 채권자 및 주주 간 복잡한 이해관계를 중립적 위치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회생전략, M&A, 자산 매각, 자본 유치 등에 대해 전문성, 신속성, 공정성 등을 확보

한 제3자 관리인은 종합적 관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칼럼에 관한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NTACT US

Deal Advisory2본부
양진혁 전무
Tel. 02-2112-0432
E-mail. jinhyukyang@kr.kpmg.com



경제연구원 노승환 책임연구원

Tel. 02-2112-0296
E-mail. seunghwanroh@kr.kpmg.com

위기를 기회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돕는 회생전문팀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경영난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늘어난 가운데 지난해 국내 기업의 회생·파산 신청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삼정KPMG는 회생자문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2024년 초부터 회생전문팀을 구성하여 위기에 빠진 기업들에 대한 재건을 돕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는 삼정KPMG 회생전문팀을 만나본다.



기업 회생의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는 회생전문팀의 힘찬 파이팅!

기업 회생 타이밍이 중요해, 전문가와 위기 대응 모색해야

최근 판매자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티메프 (티몬과 웨메프) 사태’가 이슈이다. 이는 이커머스 등 유통 플랫폼 업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구조조정 시기를 놓쳐 사후 조치가 필요해진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들도 줄줄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또한, 전자결제대행사(PG)나 상품권 발행 기업까지 연쇄적으로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면서 재무적 어려움에 빠진 기업들이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기업이 회생절차를 통해 재건의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대부분의 기업이 회생신청을 하면 재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지만, 시기를 놓쳐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매우 약해진 상황에서는 회생절차를 활용한다 해도 재건이 쉽지 않다. 운전 자본이 일정 이상 떨어지면 기업 혼자 분투하지 말고 회생 전문가와 함께 경영 위기 대응 전략을 짜야 위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회생의 A부터 Z까지, 경험과 노하우 갖춘 회생전문팀

삼정KPMG는 코로나19 이후 금리 인상 및 경기 침체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의 장기화로 기업들의 회생사건 신청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2024년 초, 회생전문팀을 꾸렸다.

회생전문팀은 리더인 양진혁 전무를 비롯하여, 회생자문에 관한 전문 지식과 다양한 범위의 업무 이력을 보유한 신상욱 상무를 필두로 풍부한 회생조사 업무, M&A, 실사, 가치평가 등의 전문 경험을 지닌 최고의 전문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팀원 모두가 법률적인 절차인 회생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생법원 실무준칙, 회생사건 실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갖춰야 할 전문적인 지식을 상당 부분 축적하고 있다. 또한, 팀원 모두가 M&A 자문, FDD, Valuation, NPL 자문 등 다양한 서비스 라인에 대한 업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회생절차에서의 One-Stop Solution 제공이 가능하다. 아울러 다수의 회생전문 법무법인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어, 회생절차를 고민하는 기업들에게 회계 및 법률 자문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

회생전문팀 주요 서비스

- 회생 인수·합병(M&A)
- 회생조사
- DIP(Debtor-In-Possession) Financing 자문
- 사전회생계획안(Pre-Packaged Plan) 자문
- 회생신청 자문
- 자율구조조정(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프로그램 지원

회생전문팀에 대해 소개한다면?



양진혁 전무
(팀 리더)

jinhyukyang
@kr.kpmg.com

“Together”

우리 팀은 현재 여러 회생 회사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행 중 새롭게 발견된 내용은 서로 공유함으로써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삼정KPMG의 가치 중 하나인 ‘Together’ 문화를 이루며, 회생이 필요한 기업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의 꽃을 피워 가고자 합니다.



신상욱 상무

sangwookshin
@kr.kpmg.com

“Architect of Change”

삼정KPMG는 회생 업무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재들로 구성된 회생전문팀을 올해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경기 침체 또한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생 절차를 고민하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팀은 수많은 기업과 다양한 회생 구조에 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고객의 니즈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회생전문팀은 회생 제도의 법적 활용을 고민하고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동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과거 업무 사례, 회생 시장 내 다양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회생 서비스 가이드북을 준비하고 있다. 향후 이 가이드북을 기업에 배포하여 회생 관련 정보와 사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지니뮤직,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기업

1991년 설립된 지니뮤직(대표 서인욱)은 KT그룹사로서 음악산업 발전을 이끄는 선두기업으로 성장해왔다. 지니뮤직의 1대 주주사는 KT스튜디오지니(36%)이며 2-3대 주주사는 CJ ENM(15%), LGU+(10%)로 지니뮤직은 주주사들과 사업영역별로 전략적 사업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음악에서 융합 콘텐츠 영역으로 사업 확장

지니뮤직은 이동통신사 KT, LGU+와 협력을 통해 음악 서비스를 확장하고, CJ ENM과의 합병 후 경쟁력 있는 음원을 유통하며 사업을 키워왔다. 또한, No.1전자책 플랫폼 회사 '밀리의서재'와 AI음악기업 '주스'를 인수해 융합 콘텐츠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아울러, 지니뮤직은 음악 플랫폼, AI 음악, 공연, 버추얼 콘텐츠 등으로 음악에서 융합 콘텐츠로 사업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지니뮤직은 2018년 1,712억 원 매출액을 달성했고, 2023년 3,070억 원(연결기준 매출액)을 달성, 5년 만에 무려 79% 성장을 이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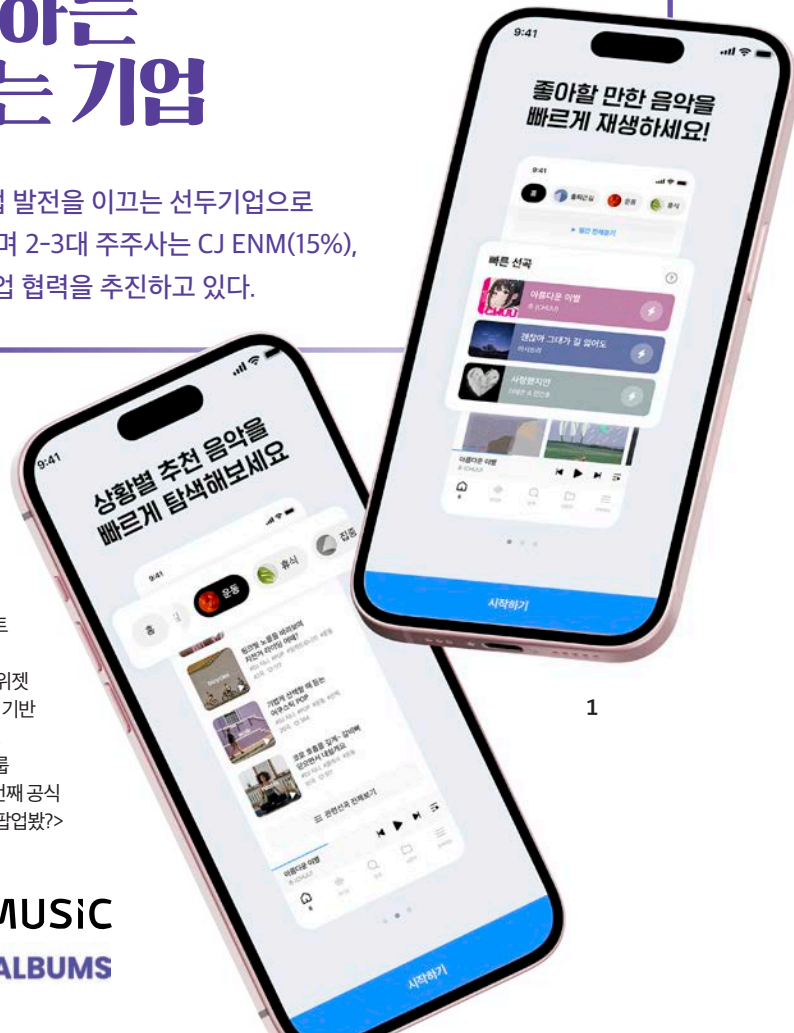
한편, 지니뮤직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기업'을 지향하며 고객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IT기술과 콘텐츠시장 흐름을 리딩하며 성장, 발전해 나가고 있다.

'빠른 선곡' 론칭, 한 곡 감상하면 알아서 풍부한 유사곡 제공

지니뮤직은 2013년 음악 플랫폼 '지니'를 론칭하며, 편리하고 트렌디한 디지털 음악 감상 방식을 제시해왔다. 최근에는 이용자가 감상한 노래를 기반으로 유사한 곡들을 큐레이션해주는 '빠른 선곡' 서비스를 선보여 주목받고 있다. 이 서비스는 음악 스타일, 장르, 악기, 시대, 발매 지역 등 다양

- 1 빠른 선곡 메인 페이지 및 상황별 추천 음악 빠른 탐색 페이지
- 2 지니뮤직 & 패러블엔터테인먼트 사업협력 계약 체결식
- 3 iOS 기반 지니뮤직 위젯 서비스
- 4 안드로이드 기반 지니뮤직 위젯 서비스
- 5 6인조 버추얼 걸그룹 '이세계아이돌'의 첫 번째 공식 팝업 스토어 <이세돌팝업북>

GENIE MUSIC
STAYG ALBUMS



1



2

한 콘텐츠 분석 기준을 적용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용자에게 감상한 음악과 유사한 곡들을 빠르게 개인화된 큐레이션으로 제공한다.

커넥티드 음악 환경 구축, N스크린 확장

지니뮤직은 다양한 환경에서 고객들이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커넥티드카와 TV에 지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과 PC를 넘어 고객들이 커넥티드카 환경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현대자동차 등 다수의 자동차 회사들과 기술제휴를 맺고 지니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KT '지니TV' 등 TV에서도 지니뮤직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KT와 LGU+ 요금제와 결합한 다양한 상품을 통해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개인화된 음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 디지털 앨범 출시, 개인 소장형 앨범 시장 진출

지니뮤직은 음악 콘텐츠 기획·투자와 유통 사업을 확장하며, 최근 친환경 디지털 앨범 '스테이지 앨범'을 출시해 개인 소장형 앨범

시장에 진출했다. 이 앨범은 플라스틱 대신 친환경 용지로 제작되었으며, 소형 실물 앨범과 초고화질 포토카드, QR 코드를 통한 음악·영상 감상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돌비 애트모스(Dolby Atmos®) 음향 기술과 KBS의 AI 직캠 영상 기술이 적용된 고품질 콘텐츠를 팬들에게 제공하며, 소장 가치를 높이고 있다. '스테이지 앨범'은 앞서 언급된 기술이 접목된 아티스트의 퍼포먼스 영상, 촬영 현장 비하인드, 스페셜 쇼츠, 포토 이미지를 독점으로 공개함으로써 팬들을 사로잡는 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 사업, 버추얼콘텐츠까지, 융합 콘텐츠 사업 선순환 도모

지니뮤직은 2022년부터 공연 사업을 본격화하며, 오프라인 공연 역량을 강화하고, 실시간 온라인 공연 플랫폼 'STAYG'를 출시해 온·오프라인 공연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팬덤과 소통하는 공연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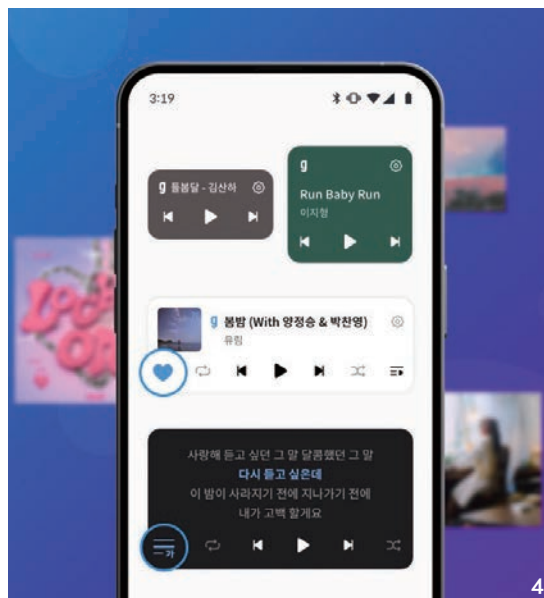
또한, 6월부터 버추얼콘텐츠 사업에도 진출해 패러블엔터테인먼트와 협력하여 버추얼 아티스트와 관련된 음원 유통, 음반 제작,

공연, 커머스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니뮤직은 융합 콘텐츠 사업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있다.

지니뮤직,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조직문화 갖추고 고객에게 새로운 즐거움 선사할 것

지니뮤직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음악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해왔다. 2022년 도입된 '지니인가이드'는 구성원들이 수평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실천하도록 돕는 행동 지침으로, 11가지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고객의 즐거움을 창조해요!', '고객은 우리 서비스의 나침반이에요!', '불필요한 일을 줄이고 본질에 집중해요!', '직급에 상관없이 의견을 제시하고 존중해요!'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지니뮤직은 CEO와 함께 하는 분기별 '소통데이', 매월 개최되는 본부별 '소통데이' 등으로 소통 문화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하고 최상의 고객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 회계 감사에 어떤 영향 끼칠까?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은 산업 전반과 우리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회계 감사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이번 호에서는 인공지능(AI)이 회계 감사에 미치는 영향, 기대되는 효과, 그리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툴(Tool)에 대해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본다.

Q AI 기술이 회계 감사에 도입된 주요 목적과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AI는 우리의 생활과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의 출현으로 변화의 속도는 더 빨라졌지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라 해서, 사람의 업무를 무언가가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비숙련노동자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생성형 AI는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고, 음악도 만들어 내는 등 복잡하고 창조적인 것도 해낼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AI의 회계 감사 활용 방안을 KPMG 글로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AI를 회계 감사에 활용하게 되면, 감사의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아울러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작업에 투입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 감사인은 보다 위험도가 높은 영역이나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사의 전반적인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피감사 기업에게 더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감사 실패의 위험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되며, 궁극적으로 회계사들의 자부심과 업무 만족도 또한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Q 그렇다면, 다양한 AI 감사 툴을 소개해줄 수 있나요?

삼정KPMG는 KPMG 글로벌과 긴밀하게 협조하며, 자체 개발 AI뿐 아니라 글로벌에서 개발한 AI 감사 툴(Tool)도 적극 도입 및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A.I. Transaction Scoring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전수 분석하여 상대적으로 위험한 거래를 식별해 주는 KPMG만의 실증감사 목적의 솔루션입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도는 과거에도 없었으나, AI를 활용하여 단순 위험분석이 아닌 감사 증거 획득에 사용되는 솔루션은 KPMG가 유일합니다.

또한, ▲DataSnipper를 활용하면, 사진이나 PDF 등 전자 문서 형태로 입수한 거래 증빙 대사도 순식간에 끝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빙대사시 인용된 원본 문서의 특정 단어나 숫자를 Highlight해 주고, 대사 결과란을 클릭하면 원본 문서의 인용된 영역으로 바로 이동하여, 감사인이 대사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도 수월합니다. 이것은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이라는 문서상의 글자인식 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가능합니다.

▲AuditSay+는 기존 회계사들의 회계 및 감사 관련 지식 데이터베이스인 AuditSay를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대화 형식으로 자료 검색 및 요약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ChatGPT 등 일반 생성형 AI 서비스는 범용 지식만 학습한 데 비해, AuditSay+는 삼정KPMG 내부의 과거 질의 회신 사례 등 전문 지식을 학습하여 더 정확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MS Copilot도 회계사들의 데이터 분석이나 문서 검토, 회의록 작성, 조서 작성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Q 최근 KPMG 클라라에 생성형 AI 기술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어떤 점이 기대되나요?

KPMG Clara AI Chat(이하 'AI Chat')은 데이터 보안이 강화된 KPMG만의 Private Cloud 환경에서 OpenAI의 최신 ChatGPT 모델을 KPMG의 회계 및 감사 지식으로 학습한 것입니다. 일반 생성형 AI를 사용하게 되면 기밀 데이터의 유출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안전한 KPMG 환경에 구현해 놓아, 고객 데이터 외부 유출 위험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또한, ChatGPT의 강력한 문서 요약 및 작성 능력을 그대로 살리면서 회계 감사 업무에 특화된 것이 강점입니다. AI Chat은 기존 생성형 AI처럼 업로드한 문서 내용을 기반으로 지식 검색이나 요약도 가능하지만, 특히 감사 플랫폼인 KPMG Clara와 상호 연동되면서 감사의 효율을 향상시켜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이사회 의사록을 일반 생성형 AI에 업로드 하여 위험분석을 시키면, AI Chat은 추가 파일 업로드도 필요 없이 회계 및 감사와 관련된 내용을 식별해 주고, 회계 감사에 필요한 절차를 설계 및 실행까지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에는 감사인이 AI가 수행한 결과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효율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결과는 최종적으로 감사인이 적정성을 검토한 후 활용되지만, 감사인이 방대한 문서를 읽고, 관련 감사 기준을 확인하며 분석하는 것에 비해 훨씬 효율이 향상될 것입니다.

Q 향후 삼정KPMG에서 도입될 IT 오딧 툴이 있나요?

아직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AI를 활용해 개발 계획 중인 감사 툴도 많고, 향후 AI 발전에 따라 가능해지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I 이외에도 회계 감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첨단 기술로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소위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를 발행, 보유 및 거래를 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기업을 감사해야 하는 것도 회계 법인의 업무가 되었습니다. 가상화폐는 실물이 존재하지 않아, 실사를 할 수도 없고, 블록체인의 탈중앙화(De-centralization) 속성으로 인해, 금융기관이나 정부 기관처럼 신뢰할 수 있는 상대방에게 거래 사실이나 소유 여부를 조회할 수도 없습니다. 대신, 모든 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암호화하여 블록체인 상에서 공개하므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직접 접근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정KPMG는 자체적으로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2022년부터 직접 블록체인 정보를 조회하는 감사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RM-DPP 박원일 상무

Tel. 02-2112-3032
E-mail. wonilpark@kr.kpmg.com



알아두면 쓸데있는 시사·경제 용어사전

최근 뉴스에 자주 눈에 띄는 시사, 경제 용어를 소개하는 ‘알쓸사전’! 이번 호에서는 차세대 통신 주도권을 잡기 위해 탄생한 협의체와 미국 연준에서 금리인하를 시사하며 뉴스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경제 용어를 배워본다.

차세대 통신 주도권을 잡아라 6G와 위성통신 분야 협의체 탄생! ‘6G 소사이어티’

차세대 네트워크 6세대 이동통신(6G)의 최초 상용화를 위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시작됨에 따라 정부가 통신 강국의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 6G 소사이어티를 발족했어요. 지난 7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G 표준 선점과 발 빠른 상용화 등을 위해 6G 소사이어티 발족식을 가졌어요.

6G 소사이어티는 6G 필수 기술 중 하나인 위성통신과 6G 이동통신 간 소통 증진을 위해 기획됐어요. 6G 시대에 지상·해상·공중을 잇는 초공간 통신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지상 이동통신과 위성통신 기술의 유기적 결합이 매우 중요한 만큼 **기술 개발 단계에서부터 양 분야 간 지속 협력을 통해 초연결·초저지연·초공간**의 6G 무선통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랍니다.

한편, 6G는 데이터 전송 속도가 5세대 이동통신(5G)보다 최대 50배 빠른 차세대 통신 기술로,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차, 로봇, 확장현실(XR) 등 미래 기술을 일상생활에서 구현하는 첨단 신산업의 핵심 기반 기술입니다.



시장의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금리 인하, ‘빅컷(Big Cut)’

최근 경제 뉴스를 보면 빅컷(Big Cut)이라는 용어를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빅컷이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대폭적인 금리 인하(0.5% 포인트 이상)를 단행하는 상황을 의미해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중앙은행이 은행 등 금융회사와 예금·대출 같은 자금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지표인데, 물가와 실물경제,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금리를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금리 조정은 소폭으로 이뤄지지만,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거나 경기 부양이 시급할 때는 중앙은행이 큰 폭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아울러, 빅컷과 반대말은 ‘빅스텝(Big Step)’인데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올릴 때 사용해요.

한편, 연준이 지난 9월 18일(현지시간) 0.5%p 금리를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했어요. 이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대응을 위해 금리를 낮춘 이후 4년 반만인데, 오는 11월에도 0.5%p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에 연준 내에서는 점진적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요.

행복한 일터 Happy Workplace



People First I

곤지암 리조트에서 열린 입문 교육 스케치
2024 신입 회계사 연수 현장 대공개

16

People First II

신입 회계사 전격탐구!
“우리는 신입 삼정인입니다”

20

삼정人톡

선배 삼정인이 보내온 환영 메시지
“어서와! 진심으로 환영해!”

22

삼정동호회자랑

공 구르며 행복도 2배로 키우는!
볼링 동호회 ‘데구르르’

24

세계가 열린다

글로벌 파견자가 전하는 어드바이스
인도 Korea Desk편 by 문지호 Director

26

이동규의 두줄칼럼

채용의 법칙

28

心 Care

새내기 직장인, 버티기보다 성장하기

30

Samjong News

김교태 회장 재선임...
“모두가 체감하는 긍정적 변화 이끌 것” 外

32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입문 교육 스케치 2024 신입 회계사 연수 현장 대공개

삼정KPMG는 신입 회계사들이 안정적으로 사회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온보딩 프로그램(On-Boarding Program)을 진행하고 있다. 온보딩 프로그램은 삼정KPMG 인재상인 'Everyone a Leader'로 신뢰를 주며,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서로의 성장을 이끄는 리더로서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 그럼 지금부터 약 2주간 진행된 입문, 직무 교육에 참여한 신입 회계사들의 교육 현장으로 들어가본다.

'People First'! 인재 존중 문화를 추구하는 삼정KPMG가 10년 연속 Big4 회계법인 중 가장 많은 신입 회계사를 가족으로 맞이했다. 전 문가로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신입 회계사들은 지난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광주 곤지암 리조트에서 열린 2박 3일간의 입문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Z세대의 높은 몰입을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미와 공감, 디지털화, 체득화'를 컨셉으로 마련됐다.

Day1. Welcome to KPMG!

삼정KPMG와 나, 우리에게 대해 이해하기!

부푼 설렘과 함께 힘찬 발걸음으로 교육장에 도착한 신입 회계사들은 미소를 띠며 서로 인사를 나눴다. 입문 교육 첫날, 시작을 알린 세션은 선배 삼정인이 들려주는 '슬기로운 삼정생활'이었다.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삼정KPMG가 추구하는 'People First'라는 인재 존중 문화를 중심으로 삼정KPMG만의 인재 지원 및 복지 제도 등에 대해 살펴봤다. 또한, 선배 삼정인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법인 생활 노하우도 들을 수 있었다.



이어서 KPMG의 5가지 Value인 Integrity, Excellence, Courage, Together, For Better에 대해 배우고, 이를 이해할 수 있는 'Value Race' 세션이 진행됐다. 외부에서 다양한 팀 활동을 통해 미션을 해결하고, 동기들과 화합하는 동시에 Value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외에도 전문가로서의 첫걸음을 내딛기 전, 신입 회계사들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셀프 리더의 시작, 나의 강점 이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 시간에는 자신의 강점을 바탕으로 주도적 업무 수행 방법을 고민하며, 셀프 리더십 역량을 강화 하도록 했다. 아울러 난치병 아동들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한 '너와 나, 우리의 소원팔찌 만들기' 세션을 통해 CSR 활동에도 참여했다. 아동들의 소원이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팔찌를 정성스럽게 만들고 응원 메시지를 적어 전달했다.

Day2-1. 디지털 회계 감사 시대를 선도하는 전문가로!

입문 교육 둘째 날은 디지털 회계 감사의 시대에 맞춰 최신 디지털 트렌드를 이해하고, 다양한 인공지능(AI) 툴(Tool)을 직접 활용해 보는 시

간으로 마련됐다. 올해부터 처음 도입된 이 세션은 AI와 디지털 환경이 회계법인과 회계사들의 업무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해하고, 앞으로 신입 회계사로서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삼성KPMG의 Audit Innovation을 담당하는 박원일 상무가 강사로 나서, 디지털 트렌드와 삼성KPMG의 변화, 그리고 법인에서 활용 중인 다양한 디지털 툴과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 이를 통해 AI와 디지털 기술이 회계법인에 미치는 혁신적 변화를 이해하고, 디지털 시대의 신입 회계사로서 필요한 마인드셋과 디지털 역량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 이어진 'AI Value Shorts' 세션에서 음원, 이미지 생성 AI Tool을 활용해 KPMG의 Purpose, Vision, Strategy, 그리고 5 Values를 뮤직비디오와 카툰으로 제작하며, AI Tool 활용법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KPMG의 주요 가치들을 다시 한 번 내재화할 수 있었다.

Day2-2. 축하공연, 다양한 이벤트 등 풍성하고 즐거운 환영의밤

이날 저녁에는 신입 회계사들을 환영하는 축하 만찬이 열렸다. 행사



는 선배 삼정인들의 축하 공연으로 막이 올랐다. 이들은 지난 5월에 열린 'People First Concert'에서 KPMG'S GOT TALENT 무대를 장식한 Top4의 주인공들로, 신입 회계사들의 입사 축하를 위해 화려한 공연을 펼쳐 열띤 호응을 얻었다. 이어 채용 TFT와 신입 회계사들의 부모님들께서 영상을 통해 신입 회계사들에게 환영과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김교태 회장의 축하 건배사를 시작으로 인간 vs AI 노래퀴즈, 소통 공감 퀴즈쇼 슬기로운 삼정생활 2, 이심전심 CEO 이상형 찾기 게임, 럭키드로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환영 축하 만찬이 이어졌다.

Day3. 전문가로서의 기본 비즈니스 소양을 다지고 삼정KPMG에서의 성장 비전 그리기!

입문 교육 마지막 날에는 FY24 New Partner들이 신입 회계사들에게 비즈니스 매너, 커뮤니케이션 스킬, 시간 관리 등 사회인으로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역량을 교육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New Partner들의 노하우가 담긴 비즈니스 에티켓/커뮤니케이션, 시간관리 팁을 통해 신입 회계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전문가 역량을 함양할 수 있었다.

입문 교육 마지막 시간으로 '나만의 비전 피규어 만들기' 세션을 통

해 신입 회계사들의 각자의 비전과 성장 계획을 그려보고 이를 가시화하며, 전문가로서의 성장을 그려볼 수 있었다. 이어서 2일 차에 제작한 AI Value Shorts 시상식을 끝으로 모든 입문 교육이 마무리됐다.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프로페셔널로!

모든 입문 교육을 마친 후 신입 회계사들은 9월 26일, 전문가로서 지켜야 할 윤리의식과 품질관리 규정, 독립성 등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전문가로서 각자의 목표를 다짐했다. 또한,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Function별 직무 교육에 임하며 선배 회계사들을 통해 기본 업무 지식과 현업에 필요한 실무적 지식을 습득했다. 2주간의 교육을 모두 마친 신입 회계사들은 어떤 비전을 마음에 품었을까? 이들의 열정적인 첫걸음이 인재를 최우선으로 하는 삼정KPMG와 함께 크나큰 성장을 이룰길 바라며, 힘찬 응원을 보낸다. 한편, 삼정KPMG는 신입 회계사들이 법인에 빠르게 적응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3개월간의 본부별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신입 회계사들은 삼정KPMG만의 주니어 집중 육성 프로그램인 'Global Elite Program(GEP)' 대상자로, 3년간의 교육/성과/정성평가를 기반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뽑힌 우수자들에게는 법인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받는다.



WELCOME TO 삼정 KPMG



[신입 연수 영상 스토리]
*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신입 회계사들의 열정적인 연수 현장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입 회계사 전격탐구!

“우리는 신입 삼정인입니다”



“최고의 회계법인 삼정KPMG에서
훌륭한 선배님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영광입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취미: 독서
MBTI: INTP –
논리적인 사색가

이도현 회계사 (ICE2)

사람을 중요시하는 문화에 이끌려 삼정KPMG에 입사하고 싶었습니다. 면접 과정에서부터 각 지원자에게 차별화된 질문을 통해 세심하게 선발하려는 모습, 구성원을 생각하며 회의실 이름을 정하는 문화, 오픈하우스 행사와 온보딩 프로그램 등 People First에 기반한 삼정KPMG의 인재 존중 문화가 매력적이었어요. 또한, 국내 최초로 AI 감사 플랫폼을 감사 현장에 적용하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역동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훌륭한 인재들과 함께 변화를 주도하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 삼정KPMG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감사인으로서 전문성뿐만 아니라,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따뜻한 성품을 지닌 삼정인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해 회계 감사와 정보통신 분야 모두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고, 삼정KPMG가 보유한 AI 감사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효율적인 감사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이루지 못할 것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며 선배님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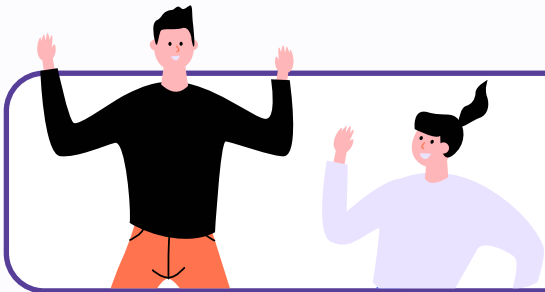


취미: 헬스와 자전거,
스키 등
MBTI: ENFJ –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김덕환 회계사 (IM1)

그동안 입사하고 싶었던 삼정KPMG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저에게 ‘People First’를 추구하며 인재를 존중하고 아끼는 삼정KPMG에서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쌓고, 함께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입문 교육 연수 기간, 몸소 체험한 삼정KPMG만의 고유한 조직문화는 삼정KPMG에 대한 저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삼정KPMG가 필요로 하는, 믿고 맡길 수 있는 회계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삼정KPMG는 저에게 온전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주었으니, 이제는 삼정인으로서 삼정KPMG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Excellence’를 최대한 발휘하여 실력을 갈고 닦도록 하겠습니다. 삼정KPMG가 기대하는 믿음직한 회계사로 성장하여, 제공해 주신 소중한 기회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나아가 전문가로서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치 있는, 멋진 삼정인이 되겠습니다. 파이팅!



이번 호에서는 사회 첫 시작에 나선 2024 신입 회계사를 만나보았다.
열정과 패기로 뚝뚝 뚫은 신입 회계사 4인방을 만나 앞으로의 포부와
선배 회계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들어봤다.

**"선배님들의 조언을 마음에
새기며 배우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막내가
되겠습니다!"**

취미: 농구, 수영 등
MBTI: ENFP –
재기발랄한 활동가



권순빈 회계사 (Tax3)

합격 통보를 받자마자 부모님께 전화드려 드디어 취업 준비가 끝났다고 말
씀드렸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삼정KPMG는 수험생 시절부터 매
년 신입 회계사 모집과 인재 양성에 열정을 쏟는 법인이었고, People First
라는 조직문화는 타 조직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삼정KPMG만의 고유한
문화로 매년 업계 최고 성장률을 달성해온 비결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가치와 성과 덕분에 저는 언제나 삼정KPMG를 1지망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새로운 내용을 빠르게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낙천적인 성격으로 인해 사소한 실수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입사 후 제가 맡은 업무는 항상 3번 이상 검토
하여 선배 회계사님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삼정KPMG의 파트너로 성장하여, 제가 인턴십을 경험했던
기업을 삼정KPMG Tax 클라이언트로 유치하는 것이 저의 궁극적인 커리
어 목표입니다.

**"사위지기자사(士爲知己者死)*,
선배님들께서 많은 기회를 주신 것처럼
저도 후배 회계사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법인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취미: 맛집 탐방,
사진 촬영
MBTI: INTJ –
용의주도한 전략가



배연지 회계사 (Deal Advisory3)

삼정KPMG 입사 소식을 들었을 때, 긴 수험 생활이 모두 보상받는 듯한 기
분이었습니다. 특히 삼정KPMG는 저연차 회계사들에게도 다양한 경험과
성장 기회를 제공해주는 곳이라 더욱 입사하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법인
설명회에서 리크루터 분들께서 진솔하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시고, 따
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모습에 깊은 감동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저도 이
법인의 일원이 되어 함께 성장하고 싶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만화 '슬램덩크'에서 정대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팀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듯이, "그래, 난 삼정인. 포기를 모르는 회계사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
하는 삼정인이 되고 싶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삼정KPMG와 함께 성
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김교태 회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술연'처럼,
임무 앞에 주저하지 않고 빠르게 행동하는 신입이 되어 팀에 꼭 기여하겠
습니다!

선배 삼성인이 보내온 환영 메시지 “어서와! 진심으로 환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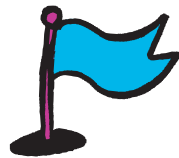
신입 삼성인을 새 가족으로 맞이하며, 선배 삼성인들을 대상으로 응원 메시지 이벤트를 진행했다. 사회 첫 시작을 앞둔, 신입 삼성인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주옥같은 선배들의 응원 메시지를 소개한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정한규 Senior (B&F3)

삼성KPMG에 입사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쯤 이곳이 어떤 곳일지, 나의 역할이 무엇일지 수많은 생각과 고민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실수는 성장의 거름이 되고, 실패는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자양분이 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질문하고, 때론 넘어지기도 하세요. 중요한 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의 여정에 축복을 보내며, 곧 필드에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파이팅입니다!



“함께할 미래, 기대됩니다!”

방은비 Associate (CM1)

삼성KPMG에서는 배움의 기회가 무궁무진합니다. 다양한 프로젝트와 클라이언트와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뛰어난 역량을 갖춘 동료들과의 협업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 더욱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거예요. 아울러 선배들은 단순히 업무 도움을 넘어서, 여러분의 성장과 발전을 진심으로 지원해 줍니다.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여정이 배움과 성취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여러분과 함께할 미래를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멋진 출발을 응원합니다!



“성장할 기회가 넘치는
멋진 여정이 기다려요!”

허정 Associate (ICE2)

신입 회계사 여러분! 삼성KPMG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하는 업무라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만큼 성장할 기회가 넘쳐나는 멋진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이 멋진 여정에서 멋진 경험과 성과를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에너지가 삼성KPMG를 더욱 빛나게 할 것이라고 믿어요.





“우리들과 함께 나아가요”

송명근 Senior (Tax4)

먼저, 입사하기까지 수많은 역경과 고난들을 헤쳐온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곳에 입사하셔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며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우리들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앞으로 힘든 일이나 어려움들이 많을 수 있지만, 함께 이겨내 봐요! 사실 이 말은 제가 입사했을 때 듣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여러분들에게 보냅니다.

“값진 경험과 성취를 이뤄 가기를!”

김정은 Manager (CM2)

첫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인에서의 많은 경험은 여러분을 더욱더 멋진 전문가로 성장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험생활을 지나 사회인이 된 것처럼 법인 내에서의 어려운 순간들도 어떻게든 지나가더라도요. 하하. 이왕 지나가는 거 의미 있는 경험과 배움이 남도록 주변의 좋은 선배 회계사님들과 잘 헤쳐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좋은 경험과 노하우를 얻어가세요!”

한영옥 Manager (Deal Advisory2)

5년 전 입사 당시 동기들과 함께 파트너분들께 첫인사를 드릴 때의 긴장감과 설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나고 보니, 근무하며 힘들었던 일은 성장의 발판이 되었고, 좋은 일은 숨 가쁜 법인 생활을 리프레시하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네요.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팀원을 존중하고, 업무에 대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 하는 업무라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최대한 고민해서 선배들에게 여쭙보고 배워가면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업무 중 막막할 때마다 ‘결국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라는 말을 되새깁니다. 회계사 시험에 합격할 정도의 노력이면 사람이 하는 일 정도야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자신감을 가지고 삼정KPMG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인연! 환영합니다”

이현수 S.Manager (Tax6)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런 후배님들과 동료이자 전문가로서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소중한 인연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빛나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걱정도 많을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선배로서 진심 어린 응원을 전합니다.



“매 순간을 즐기세요!”

이보람 S.Senior (B&F3)

신입 삼정인 여러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지금,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을 텐데요. 저도 그 기분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저 역시도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입사하고 나니 그 모든 걱정이 즐거운 추억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저를 이끌어 주신 선배 회계사분들과 매일매일 함께 성장하는 동기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 응원은 바로 이겁니다!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매 순간을 배우고 즐기는 하루를 보내세요!”



“걱정말아요, 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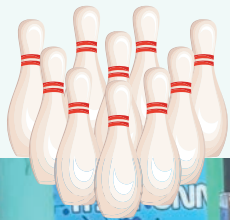
김현규 S.Senior (IM3)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인생의 큰 고비(공인회계사 합격)를 넘긴 당신들은 법인에서 생길 그 어떤 고비도 넘길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신 분들입니다. 어서 와서 우리 같이 기말 시즌을 불태워봐요!



공 구르며 행복도 2배로 키우는! 볼링 동호회 '데구르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볼링이란 스포츠로 화합을 다지는 삼정KPMG 동호회 '데구르르'. 개설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활발한 활동을 자랑하며 신입 동호회원을 전격 모집한다고 한다. 이 재미있는 스포츠를 많은 삼정인들과 함께 즐기고 싶다는 동호회원들이 전해온 행복 가득한 활동 스토리를 공개한다.



볼링공이 데구르르! 웃음도 데구르르!

지난해 5월에 신설된 삼정KPMG 볼링 동호회 '데구르르!' 어느덧 활동이 1년 차를 넘어섰다. 1년간의 활동을 지내오며, 이 즐거운 활동을 많은 삼정인들과 나누고 싶어 본격적으로 신입 동호회원을 모집하고 싶다고 내비쳤다. 동호회 회장을 맡은 정다현 S.Analyst는 “동호회명인 데구르르는 볼링공이 굴러가는 모습과 볼링으로 활기차고 즐겁게 어우러지자는 의미”라며,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볼링이란 스포츠를 많은 삼정인들과 함께하고 싶어 개설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다양한 본부와 직급의 60여 명이 동호회원으로 활동 중인데, 김양태 상무의 따뜻한 지도 덕분에 동호회가 잘 운영되고 있다”며 많은 삼정인들도 우리 동호회를 통해 삶의 재미와 즐거움을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격주마다 모여 스트레스 격파!

정다현 S.Analyst(DA9): 우리 동호회는 격주 목요일마다 회사 인근 볼링장에서 정기 모임을 진행 중입니다. 정기 모임에 10명 내외의 회원들이 모여 볼링을 치고 스트레스 해소 중인데요, 희망자에 한해 식사 모임을 가지며 즐거운 추억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김지훈 S.Analyst(BD&Markets): 단순히 볼링을 치는 것을 넘어, 실력도 향상될 수 있도록 1년에 두 차례 정도 선수 출신 프로 강사님에게 정기 강습도 받고 있어요. 지난해 가을, 올해 봄, 2차례의 강습 결과 스피드를 화려하게 넣는 회원들, 개인 장비를 갖추고 멋진 자세로 스트라이크를 연속으로 퍼붓는 회원들까지, 회원들의 볼링 실력이 더욱 향상되었어요.

정지훈 S.Analyst(DA9): 마이볼! 구입한 사람 바로 접니다. 하하. 평소 좋아하는 볼링을 체계적으로 강습받고 싶었는데, 동호회 덕분에 좋은 기회를 얻었어요. 전문적인 강습을 통해 스피드 구사하는 다양한 기술과 안정적으로 점수를 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동호회 활동을 통해 볼링이 더욱 좋아졌달까요? 이제는 볼링이에서 볼링러로 실력이 향상된 거 같아 기쁘기도 해요.

자기 계발도 하고, 든든한 동료도 얻고!

이소정 S.Analyst(DA2): 요즘 누구나 취미 하나쯤 기본으로 하는 것일 시대잖아요. 저는 사내 동호회 활동으로 자기 계발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다가와요. 볼링을 경험해보고 싶어도, 마음이 맞는 사람 2~4명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특히 하찮은 실력에 비해 가볍게 치기에는 가격도 비싼 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동호회 지원금으로 부담 없이 다양한 본부원들과 4인 1조를 이뤄 볼링을 즐길 수 있고, 친목도 쌓을 수 있으니 좋아요!

김지훈 S.Analyst(BD&Markets): 저는 지난해 'Channel'을 통해 소개된 데구르르 활동을 보고, '재미있어 보이네, 한번 가볼까?'라는 마음에 가입하게 됐어요. 첫 모임에 참가하기 전에 모르는 분들뿐이라 많이 긴장했었는데, 우려와 달리 편안한 분위기 덕분에 쉽게 친해질 수 있었어요. 초반에 볼링 실력도 좋지 않았는데 모두 용기를 북돋워 줘서 빠르게 배울 수 있었고, 서로 응원해주는 든든한 동료들 덕분에 법인 생활에도 큰 활력을 얻게 되었어요.

정다현 S.Analyst(DA9): 맞아요. 실제로 다양한 본부 간의 소통으로 서로의 업무에도 큰 도움을 받으며 든든한 동료를 얻었다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동호회 개설 초기에는 자연차 위주의 동호회였지만, 활동이 지속되면서 Audit, Tax, Deal Advisory, CS 등 다양한 본부의 회원들이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됐어요. 그리고 활동에 참여한 분들이 자연스레 주변 동료분들을 초대하면서 더욱 다양한 본부와 직급이 활동하는 동호회가 되었습니다.

초보자도 베테랑도 모두 대환영! 신입 삼정인 참여도 기다려요~

이소정 S.Analyst(DA2): 볼링의 매력은 실력이 점차 향상되면서 공이 데구르르 잘 굴러갈 때의 쾌감인 것 같아요. 저는 볼링 동호회를 시작할 때 40점이라는 낮은 점수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80~100점 이상을 받게 되었어요. 물론 여전히 낮은 점수지만, 공을 굴리는 힘도 늘었고, 방향성을 컨트롤하는 방법도 배워가고 있어요. 그러니, 초보자라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세요. 천천히 차근차근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을 나누어 진행하는 등 각자의 눈높이에 맞는 성장을 지원해 갈 계획이에요.

김지훈 S.Analyst(BD&Markets): 뿐만 아니라 가을에도 전문 강사 강습이 예정되어 있어요. 특히, 감사본부 회원분들의 업무 시즌을 고려해, 매년 5월과 10월에 진행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업무를 하다, 일상생활을 하다 쌓인 스트레스도 확 날릴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지훈 S.Analyst(DA9): 올해 입사하신 신입 삼정인분들의 관심과 가입도 기다립니다! 다양한 삼정인들과 깊이 있는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연말 송년회도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동호회 문의

“볼링 동호회 '데구르르'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신규 회원은 항상 환영하며, 동호회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회장인 정다현 S.Analyst와 또는 데구르르의 정신적 지주인 김양태 상무님께 연락주시면 됩니다. 함께 볼링장에서 공을 '데구르르' 굴러보아요!”

김양태 상무(DA9) ykim32@kr.kpmg.com

정다현 S.Analyst(DA9) dahhyunchung@kr.kpmg.com

글로벌 파견자가 전하는 어드바이스 인도 Korea Desk 편 by 문지호 Director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 인도. 삼성KPMG는 기회의 땅인 인도에서 한국 기업들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 Korea Desk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2023년 9월부터 인도 Korea Desk에 파견 중인 문지호 Director(jihomoon1@kpmg.com)를 통해 인도의 비즈니스 환경과 기회를 살펴본다.



고객사 방문 기념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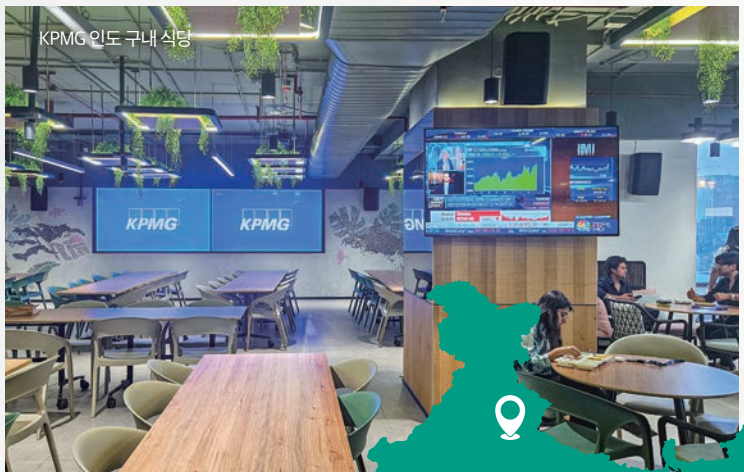


빛의 축제라 불리는 디왈리 축제 때 초대 받은 집에서

인도 Korea Desk



인도에 진출한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감사업무, 세무 신고 그리고 조세불복 서비스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국 고객사들이 인도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타당성 검토, 신규법인 설립, 인도 법인 인수합병(M&A), 인도 증권시장에서의 기업공개(IPO) 업무 등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인도의 주재원들을 대상으로 코트라와 협력하여 인도 비즈니스 관련 회계 및 세무 가이드를 배포하고,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KPMG 인도 구내 식당

India



모디 3기 정부 출범,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 고조

지난 6월 총선에서 '경제 총리'를 내세운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3연임에 성공했다. 모디 총리의 3기 연임 확정 이후 인도 증시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9월 3일 기준, 인도 대표 주가지수인 니프티50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며, 올해 상승률은 16.78%에 이른다. 이러한 증시 상승과 관련 펀드로의 자금 유입은 모디 3기 정부가 제조업 육성을 주요 정책으로 본격 추진하면서 인도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인도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의 가장 큰 수혜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약 14억 2000만 명의 세계 인구 1위를 자랑하는 인도는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이자, 노동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포스트 차이나로 각광받고 있다. 인도의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5위이며, 지난해 7.8%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서방 국가들의 탈중국 전략으로 인도는 중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글로벌 생산 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인도가 과연 중국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존재한다. 이는 고등교육을 받은 인력의 수와 사회간접자본(인프라)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중국을 넘어선 인구수와 중위 연령 27.9세의 젊은 인구로 형성된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어,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에 있어 중요한 전략적 시장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특히 경제 성장에 따른 국민 소득 증가에 힘입어 인도는 세계 최대 소매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 대기업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는 인도 소매 시장이 2027년 1조 4000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2030년에는 세계 제3대 소매시장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도 시장 진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율 필요

인도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크지만, 불확실성 또한 높다. 한국에서는 업무를 진행하기 전에 어느 정도 결론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추진하는 경우가 많지만, 인도에서는 대부분의 상황이 불확실하다. 인도에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일정이 지연되거나 처음 예상했던 결과와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로 인해 한국 본사에 대략적인 결론을 보고한 주재원들은 일정이 지연되거나 결과가 처음 보고와 달라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인도 시장에 진출할 때는 모든 사항이 확정되기 전까지 성급한 판단을 피하고, 진행 과정에서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중간에서 적절히 조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직급에 맞는 상급자가 판단을 내려야만 업무가 진행되며, 상급자가 상하지 않으면 장시간 대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주재원들은 이러한 부분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빠르게 결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가 누적되어 전체적인 일정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인도는 세법과 규제는 매우 복잡하며, 새로운 규제가 수시로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현지 담당자들로조차 이를 따라가기 어려울 때가 많다. 아울러, 행정 및 사법 처리 속도가 매우 느려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5~10년이 걸리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인도에 진출한 기업들은 규제를 위반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문 컨설팅 회사와 자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인도에서의 비즈니스 Tip

인도인들의 협상 능력은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협상 초기에는 과도한 요구를 제시한 뒤, 협상을 지연시키며 상대방에게 양보를 이끌어내는 듯하지만, 결국 실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전략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인도인들은 명확한 답보다는 대부분의 상황을 회색 지대에 두는 경향이 있어 확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경우 추후 후회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상대방의 체면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부정적 답변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No Problem”, “No Issue”와 같은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너의 의견을 이해했다”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4년도 인도 진출 기업 경영 지원 세미나 기념 사진



“바른 인성이 먼저다 가장 뛰어난 사람보다 가장 적합한 사람을 초빙하라”

채용의 법칙

“People 1st, Strategy 2nd.” 이는 업무의 70%는 인재관리에 쓴다고 했던 GE 잭 웰치 전 회장의 집무실에 걸려 있어 유명해진 글귀다. 인사관리의 핵심은 한마디로 적재적소이고, 그 첫 단추는 채용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 특히 지식·기술 기업은 인재가 전부다.

일단 조직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채용·면접의 5가지 기준은 ‘T·A·S·K·S(Talent, Attitude, Skill, Knowledge, Style)’로 요약된다. 그러나 그 어떤 잣대를 들이대어도 인간의 평가는 결국 [능력(才)×태도(德)]이다. 선조들은 ‘득인위최(得人爲最)’, 즉 제대로 된 사람을

뽑으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고 했다.

절대 아무나 뽑지 마라

“돼지에게 노래를 가르치지 마라.” 이는 미국을 대표하는 전설적 CEO이자 사우스웨스트항공(SWA) 창업자, 허브 켈러 회장이 생전에 강조했던 말이다. 세상에는 아무리 해도 가르칠 수 없는 일이 있다. 돼지는 절대 노래를 부를 수 없다. 부르는 돼지도 힘들겠지만 가르치는 사람도 죽을 맛이다. 요컨대 고객을 즐겁게 하지 못하는, 즉 서비스 DNA가 없는 직원은 절대 뽑지 않는 게 이 회사의 인사방침이다. 이렇게 뽑은 직원들의 충만한 태도는 고객만족으로 회사에 보

답하고 그 결과는 놀라운 성과로 이어진다. 세계적 서비스기업의 경영 제1조 1항이 '직원 존중'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절대 아무나 뽑지 마라(Hire carefully)"는 거다. 특히 서비스는 더하기(+)가 아닌 곱셈(×) 경기라서 100점 아니면 뺑뺑이다. 한 명이 잘못하면 전체가 무너지기 십상이다. 세계적 서비스기업은 대부분 해고가 없지만 절대 아무나 뽑지 않는다. 단, 윤리 규범 위반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다. "가장 뛰어난 사람보다는 가장 적합한 사람을 초빙하라"고 했던 마윈 회장의 말이 와닿는 이유다.

글로벌 기업의 채용 기준(사례)

인사 담당자만 2천 명이 넘는다는 구글은 그 어떤 기업보다 직원을 까다롭게 뽑는 것으로 유명하다. 구글의 전 CEO 에릭 슈미트가 쓴 『How Google Works』를 보면 9가지 채용 기준이 나온다. 가장 핵심은 "뛰어난 지원자를 발견할 때만 채용하라"라는 기준이다. 아무리 자리가 비어 있어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절대로 채용하지 않는다는 룰이다.

이하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Amazon)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고려하는 3가지 원칙이다.

- 1) 존경할 만한 사람인가?
- 2)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인가?
- 3) 어떤 분야에서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소질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사람을 뽑는다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일단 대부분의 기업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건 제 일이 아닌데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닌,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라고 묻는 사람을 원한다. 지식보다는 인품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직원을 뽑는다는 것이다. 능력은 교육을 통해 향상시



킬 수 있지만, 사람의 태도는 교육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호텔리어의 가장 큰 자질은 소질(Aptitude)이 아닌 태도(Attitude)다" 포시즌스 호텔, 이 사도어 샤프 회장의 말이다. 참고로 면접의 법칙 제1조는 '잘난 모습'보다 '바른 인성'이 먼저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대기업 면접 경험담에서 나온 최빈출 단어 또한 '인성(人性)'이었다.

경력직 중심의 수시 채용이 트렌드가 되면서 채용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에선 구직자는 불필요한 스펙을 쌓고 이력서 빈칸메우기에 시간을 허비하고 정작 기업이 필요한 핵심역량은 뒷전이 되어버리고 있는 모순에 대한 자성적 목소리도 높다. "스펙 좋으면 일도 잘한다"는 통설도 깨지고 있다. 이미 학위를 필수서류 제출에서 제외, 학벌의 고정관념을 깬 구글을 비롯하여 리딩 기업들이 주도하는 '스펙 다이어트'가 퍼지고 있다. 다만 정치권이면 어디건 "사람은 많은데 쓸 만한 인재는 없다"는 탄식은 여전하고, 일자리는 원한다고 하나 일은 안 하고 자리에만 침을 흘리는 사람도 많다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 저자 소개

이동규 교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이 교수는 국내 정상급 경영평가 전문가로 최근 출시한 베스트셀러 『생각의 지문(Thinkprint)』 저자이자 초대형 교보 광화문글판 선정 작가다. 현재 조선일보 고정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두줄칼럼』은 삶과 일에 대한 근본원리를 비롯하여 경영 각 분야에 대한 인사이트, 아이디어 및 최신 트렌드 등을 언어의 쇼츠 형식으로 풀어낸 독창적인 초미니칼럼이다. 내용은 주로 인문·경영의 융복합 구성이며, AI 시대 인간만의 생각품질을 높이고 영감을 주는 지적 아포리즘 결정체다.



새내기 직장인, 버티기보다 성장하기

누구나 처음 시작은 쉽지 않다. 학교를 졸업하고, 새롭게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는 새내기 직장인들에겐 더욱더 그럴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새내기 직장인들이 겪을 고충과 그에 관한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 Profile

설진미

삼정KPMG
전임 심리상담사

성균관대학교에서 임상심리학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고려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심리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으며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임상심리실에서 슈퍼바이저로 경력을 쌓았다. 현재는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10년간 일하며 심리상담, 조직컨설팅, 강좌 및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형 표준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조직에 속한 직장인들을 만나 삶의 불안과 고통, 갈등을 성찰하고 성장을 모색해 왔으며, 조직문화를 보다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데 관심이 있다.

새내기 직장인이 겪는 불안과 지나친 자책

새내기 직장인인 신입사원들이 심리상담실에 찾아오는 주요 고민 중 하나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휴대폰만 보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다. 이들은 분명 휴식을 원했지만, 그 시간이 정작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비활동적 대처'라고 불리며, 정신적 피로에 대한 회피적 대응 방식이다. 비활동적 대처는 실제로 에너지를 회복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으며, 피로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

현대 사회는 특히 젊은 세대에게 끊임없이 경쟁을 요구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공한다. 인공지능(AI)의 등장은 신입사원들이 기존에 없던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압박을 가중시킨다. 직장 내 안정성도 예전만큼 보장되지 않으므로, 경쟁의 강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신입사원들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생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신입사원들은 '조직 사회화(Organizational Socialization)'라는 중요한 과정을 거친다. 이는 신입사원들이 회사의 조직문화에 적응하고, 자신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이해하며, 이를 수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과정은 정신적, 신체적 부담을 초래한다. 입사 전에는 스스로의 자율성을 통해 삶을 주도했지만, 입사 후에는 상사의 지시를 따르고, 동료와의 경쟁 속에서 자신의 성과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된다. 이런 적응 과정에서 신입사원들은 피로감을 느끼며, 때로는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치게 된다.

이때 신입사원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은 과도한 '자기 초점적 주의(Self-Focused Attention)'이다. 이는 자신을 과도하게 의식하고 문제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책임을 돌리는 경향을 의미한다. 신입사원들은 업무에서 실수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문제의 원인을 외부 요인이 아닌 자신의 부족함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자존감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시야를 좁히고 더 큰 스트레스를 초래한다. 이러한 내부 귀인 방식은 신체적, 정신적 피로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 번아웃을 유발할 수 있다.

'맥락적 자기' 사고와 신체적 활동으로 스트레스 완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스트레스와 피로를 완화할 수 있을까? 그 방법 중 하나는 '맥락적 자기(Contextual Self)'라는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이다. 맥락적 자기는 자신을 고정된 자아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특정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신입사원들이 실수나 업무 실패를 자신만의 본

질적인 결함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업무에서 실수했을 때 "나는 무능하다"라는 고정된 사고방식 대신, "경험이 부족해서 실수한 것이다" 혹은 "상사의 특성과 회사의 특정 맥락 속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연한 사고방식은 자신에 대한 지나친 비난과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더 넓은 관점에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신입사원들이 에너지를 재충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비활동적 휴식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인 방식으로 피로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신입사원들이 퇴근 후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지만, 이는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신, 신체 감각을 활성화시키는 신체활동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계획적인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을 규칙적으로 운동에 할애하거나, 멀리 있는 나무나 산을 바라보며 정신적 유연성을 기르거나, 명상 같은 차분한 활동을 통해 신체와 마음을 돌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습관은 단기적으로 피로를 줄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신체적으로 피곤한 날에는 퇴근 후 10분이라도 걷거나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움직이는 것이 피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과도하게 자신을 몰아붙이고 강박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피곤한 날에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여유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간단한 여유는 정신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하루의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일상 속에서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은 신입사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결코 신체와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자신의 성장이 더욱 중요해!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을 탐구하고 성장하는 여정이다. 이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고정된 자기에 매몰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이다. 철학자 빅터 프랭클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이다"라는 말처럼, 신입사원들은 자신의 성장을 인식하며 자책과 비난에서 벗어나면 좋겠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또한, 적절한 휴식과 활동, 그리고 정신적 회복을 위한 시간을 계획하길 당부하고 싶다.

*참고자료: <아픈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요즘 어른을 위한 마음공부> 김병수 저, 더 퀘스트 출판

SAMJONG-NEWS

김교태 회장 재선임... “모두가 체감하는 긍정적 변화 이끌 것”



삼성KPMG 김교태 회장

삼성KPMG가 지난 9월 20일 사원총회를 열고 김교태 회장을 2025년 6월부터 시작되는 4년의 임기 동안 대표이사로 재선임했다. 김 회장은 이번 재선임으로 2029년 5월까지 삼성KPMG를 계속 이끌게 된다.

삼성KPMG는 업계 전반 성장이 정체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리더십 유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재선임을 조기에 확정하게 됐다. 삼성KPMG의 뛰어난 경영 성과를 견인해 온 김교태 회장의 리더십 하에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성장 전략에 더욱 박차를 가하려 한다.

삼성KPMG 김교태 회장은 “앞으로도 삼성KPMG의 차별화된 전문성으로 고객의 미래 혁신과 변화에 한발 앞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며, “회계업계와 자본시장의 발전뿐만 아니라, 구성원과 고객, 시장 모두가 체감하는 긍정적 변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81년 KPMG에 입사, KPMG 미국 새너제이 및 영국 런던 오피스에서 근무하며 국제적 업무 역량을 쌓아왔으며, 지난 2011년 삼성KPMG CEO로 취임했다. 현재 KPMG International을 대표하는 의사결정기구인 KPMG 글로벌 이사회 멤버(Global Board member)로도 활동 중이다.

삼성KPMG-피플라이프, M&A 관련 업무협약 체결

삼성KPMG는 지난 9월 26일 국내 1위 보험 GA사(General Agency)인 피플라이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방배동 피플라이프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피플라이프 구도교 대표와 이진수 상무와 삼성KPMG 김이동 재무자문부문 대표와 조장균 전무가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삼성KPMG는 피플라이프의 보험판매대리점에서 관리하는 고객들이 요청할 수 있는 기업 경영, 가치 평가 등 M&A 관련 업무를 상호 지원하고 협력하게 된다.

피플라이프는 삼성KPMG의 풍부한 M&A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관리 및 마케팅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M&A에 관심이 있는 고객들에게 삼성KPMG의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 International Partner's Conference’ 미국 LA에서 성황리 개최

‘2024 International Partner's Conference(이하 IPC)’가 지난 9월 9일과 10일, 미국 LA에서 개최됐다. 2년마다 열리는 ‘IPC’는 전 세계 KPMG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KPMG가 걸어온 여정과 향후 비전을 공유하며, 성장을 다짐하는 자리이다. 이번 행사에 500명 이상의 전 세계 KPMG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며, 삼정KPMG도 멤버 펌으로서 참가해 ‘Collective Strategy v3.0’의 진전을 논의하고, 글로벌 측면에서 KPMG의 비전을 함께 구축하기 위한 방향성을 조율했다.

행사 첫날에는 사람, 고객, 사회를 위한 통합된 비전을 강조하며,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구성원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인간 중심적 접근을 강조했다. 둘째 날에는 KPMG가 인간 중심적 환경의 일환으로 직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설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KPMG의 주요 가치인 ‘Together, For Better’를 되새기며 전 세계 KPMG 리더들이 협업을 통해 혁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대전 바이오헬스케어협회 소속 CFO 대상 포럼 진행

삼정KPMG는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대전 바이오헬스케어협회 소속 기업의 CFO를 대상으로 포럼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경제 동향, 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들이 직면한 이슈를 CFO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실무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 양방향으로 논의했다. 삼정KPMG의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M&A 및 기업가치평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회계처리, 상장 전후 주요 세무이슈 및 동향,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과 US IPO에 대한 주제를 다뤘으며, 현장에 참석한 CFO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삼정KPMG 민성진 전무는 “본 포럼이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이 직면한 위험과 기회 속에서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삼정KPMG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Contact: 민성진 전무 smin@kr.kpmg.com

'감사위원회 위한 회계 이슈' 교육 콘텐츠 출시

삼정KPMG가 '감사위원회를 위한 회계 이슈'를 주제로 한 동영상 교육 콘텐츠를 새롭게 출시했다. 교육 콘텐츠는 감사위원회가 회계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주요 회계 이슈와 관련된 주의 사항을 쉽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과정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평가·사후 관리 ▲제3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매출 인식 ▲재무적 투자자와의 약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연결 범위 판단 시 고려 사항과 종속회사 관련 회계·내부통제 이슈 ▲영업권 손상 관련 이슈 등 모두 5편으로 구성된다. 콘텐츠는 삼정KPMG의 공식 유튜브 채널과 감사위원회 교육 온라인 플랫폼인 '삼정아카데미'를 통해 오는 12월까지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콘텐츠와 관련된 신규 영상 등록정보 등은 삼정KPMG ACI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삼정아카데미에서 콘텐츠를 수강하는 경우 감사위원회 교육 실적 증빙을 위한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삼정KPMG 공식
유튜브 채널]



[삼정아카데미]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정KPMG 공식 유튜브 채널과
삼정아카데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KPMG, 'HIMSS24 APAC' 컨퍼런스에서 가치 창출을 위한 헬스케어 생태계 전환 논의



지난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Creating Tomorrow's Health'를 주제로 'HIMSS24 APAC Conference & Exhibition'이 열렸다. 이 행사는 약 30개국 2,000여 명의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가들이 모여, 헬스케어 최신 기술과 동향을 공유하는 아시아 최대 의료 정보기술(IT) 학회이다.

KPMG는 행사의 스폰서로서 Keynote 등 주요 세션에 참가해 헬스케어 산업의 미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략과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10월 2일에는 '가치 창출을 위한 헬스케어 생태계 전환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패널 토의를 진행했고, 10월 3일에는 국가별 대표 인사들과 KPMG CXO 세션에서 '헬스케어 AI 혁신 사례 및 주요 고려 사항'을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 Contact: 박경수 상무 kyungsoopark@kr.kpmg.com

추석맞이 '사랑의 장바구니' 봉사활동 진행



삼정KPMG는 지난 9월 7일 강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임직원 및 가족 30명이 함께 추석맞이 '사랑의 장바구니'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봉사자들은 독거 어르신 125세대를 위한 과일, 한과 등 명절에 어울리는 음식들로 구성된 명절 특식 키트를 제작하였으며, 특별히 세대에 직접 방문하여 키트와 명절 인사를 전하며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 이날 활동에 참여한 한 임직원은 '어르신께서 사이다를 줘 주며 연신 감사하다 말씀 주시던 모습이 뭉클하고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는 소감을 전했다.

IGH본부,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점자촉각교구재 만들기 봉사활동 진행

지난 9월 6일 삼정KPMG IGH본부 소속 103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점자촉각교구재 만들기 봉사활동이 진행되었다. 시각장애 아동이 촉각으로 점자학습과 숫자를 익힐 수 있는 숫자놀이책을 제작하였으며, 제작된 교구재는 서울/경기 맹학교 및 가정에 전달되었다. 본부원들이 함께 모인 워크숍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구성원들의 결속과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동시에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Notice]

'FUTURE ACADEMY' 2기 수강생 모집

삼정KPMG가 K-디지털트레이닝(KDT) 선도기업 아카데미 사업의 일환으로 미래 소프트웨어(SW)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2기를 모집하고 있다.

삼정KPMG는 지난 7월 개설한 '삼정KPMG Future Academy' 데이터 분석과정 1기에 이어 현재 2기 모집을 진행 중이며, 약 35명의 수강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6개월의 훈련기간을 거쳐 AI를 활용한 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한다. 우수 수료생 대상으로 삼정KPMG 인턴십 기회가 제공되고, 최신 교육 장비 제공, IT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 다양한 교육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2기 과정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 위치한 (주)아이그로스 교육센터에서 진행하며, 해당 홈페이지 및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 HRD-Net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다. 해당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최근 5년 이내 K-디지털 트레이닝 수강 이력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다.

해외투자세미나 개최

- 주제: 국가별 투자환경과 진출전략, 세무/회계 관련 이슈 및 투자 시 유의사항 등
- 일시: 10월 28일(월) 09:30 ~ 16:30
- 장소: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파르나스 2층 (오키드, 카멜리아)
- 신청: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문의: 이채린 과장 (02-2112-0830, chaerinlee@kr.kpmg.com)
- 1:1 미팅 문의
신정민 차장 (jungminshin@kr.kpmg.com) - General 문의



경영 패러다임 변화 속 지속가능한 성장 아젠다 제시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과
산업별, 분야별 인사이트를 포함한 지식 콘텐츠 제공

온라인 지식 콘텐츠 플랫폼 삼정KPMG 아카데미



삼정KPMG 아카데미
미리보기



정규 교육 과정

이슈 브리핑

비즈니스 리포트

세미나 다시보기

- 감사위원회 교육 프로그램
-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프로그램
- WCD 사외이사 교육 프로그램

- 국내외 주요 트렌드와 산업별 이슈를 영상 콘텐츠로 제공

- KPMG의 발간물과 분야별 분석 보고서 저장소

- 삼정KPMG 주요 세미나 다시보기

접속 방법

www.kpmgacademy.co.kr

포털사이트에서 '삼정KPMG 아카데미' 검색

이용 대상

누구나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 가능



'Channel' 구독 정보 변경/ 신규 구독/ 구독 취소 안내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는 분, 또는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변경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E-mail: kr-fmchannel@kr.kpmg.com Tel: 02-2112-7567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